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총력

장수군, 긴급대책회의 개최... 종합상황실 운영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운영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전북지역에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장수군도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수군은 지난 21일 장영수 군수의 주재로 실과원소읍면장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전 부서장이 함께 모인 것이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응 기초 변경안이 논의됐다.

군은 '외부유입 차단'과 '접촉자 관리'에 중점을 뒀던 현재 대응 기초를 지역사회 감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현장 대응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 즉각대응팀을 편성하고, 재난 부서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즉각대응팀



장수군은 지난 21일 장영수 군수의 주재로 실과원소읍면장 등이 참석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은 확진환자 발생 시 동선파악과 접촉자 확인·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영·유아시설,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소독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소독 인력과 예산을 조기에 투입키로 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방역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영수 군수는 "지금까지 잘 대응하

고 있지만, 상황이 바뀔 만큼 방역 추진상황을 전방 재검토하고 과감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으로 군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정장수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전직원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분청 구내식당 운영일수 축소와 장수사랑상품권 할인을 확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환경기초시설 확장공사 실시

마을하수도 설치·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191억원 투입

진안군은 21일 청정 환경을 지키고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올해 마을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장공사에 191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외곡, 지사, 용정 등 5개 지구에 160억을 들여 하수관로를 22km 설치할 예정이다. 이 중 마령, 옥거, 구암, 진안, 운봉 지구는 지난 1월 조기 발주하여 10월 말 사업완료로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위한 하수관로 확장공사는 안천, 부귀 외 3개 지구에 31억을 투자하여 4.5km 하수관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수도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진안군 하수도 보급률은 79%에서 82%로 향상되고, 용담면 옥거리 등 33개 마을 1,115가구 지역주민의 생활하수처리

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진안군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용담호 유입 하천 및 섬진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장 하수관로 분야에 622억을 투자했다.

용담호 및 섬진강 상류지역에서 생활하수 무단방류로 인한 오염방지와 유입하천 수질 향상을 위해 진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580억원을 확보하여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 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나해수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해당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업비 확보로 쾌적한 진안군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공포

무주군, 8월 시행 앞두고 본격 홍보 나서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공포된 가운데 무주군이 8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특별조치법이 무주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오

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토지 등이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우사 1명 포함)의 보증서와 첨부해 무주군청 민원봉사과로 우선 접수해야 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소상공인 위해 외부 식당 적극 이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외부 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24일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직원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직원들의 주 2회 이상 무주군 관내 식당 이용도 권장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직원식당 이용 인원은 1일 평균 150여명에 달한다. 태권

도진흥재단과 자회사(태권도원운영관리(주)) 직원들이 외부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무주읍과 실천면 등 무주관내 상권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최근 관광객 감소로 무주군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클 것이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3월로 연기

진안군은 지난 21일 2019년 기준 사업체조사 오는 3월 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역 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과 사업장 대표자, 종사자 수 등 총 14개 항목을 직접 방문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당초 2월 12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 예정이었으나,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3월 2일부터 3월 27일로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년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던 조사요원 교육도 감염 우려를 감안하여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진안군 예상사업체조사 수는 2,240여 곳으로 지난해 대비 200여 곳이 증가했다.

장교의 행정지원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개별주택가격 검증 실시

진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133호에 대한 가격산정을 완료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이번 검증은 오는 3월 12일까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2명이 참여해 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유지, 주택가격의 변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증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되면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의견 제출은 진안군 홈페이지 및 진안군청 재무과에 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조사 기반한 적절한 가격공시를 위해 노력한 물론 향후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일정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제12기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 모집

내달 11일까지 사과·포도·농산물마케팅반 각 50명

무주군은 제12기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2기 과정은 사과반과 포도반, 농산물마케팅반으로 운영(4~11월) 예정이며 과정별 수강인원은 각 50명 내외다.

원서접수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수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농업대학에 다닌 적이 없는 수강생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군민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 강소농육성팀, 읍·면 상담소에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반딧불농업대학 관련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열린마당-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063-320-28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강소농육성팀 하현진 팀장은 "농업대학은 장기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농업현장에 접목하고, 자신만의 재배기술로



무주군은 제12기 반딧불농업대학 수강생을 3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12기 과정도 무주군이 지향하는 '건강가득 소득농업' 실현 기반이 되는 동시에 농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운영을 시작한 반딧불농업대학은 현재까지 총 1,392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지역특화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1년 과정의 장기교육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수업은 주 1회 4시간씩 이론 및 실습과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2기 반딧불농업대학의 사과반은 매주 화요일마다 총 22회, 포도반은 수요일마다 총 21회, 농산물마케팅반은 목요일마다 총 22회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